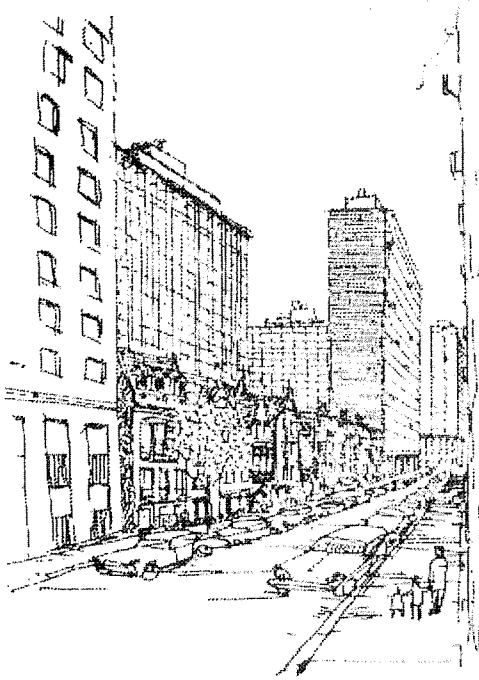


# 건축사 헌장

The Architect's Charter

EASSY

宋洙九/건축사사무소 한송  
by Song, Soo-Koo



원로시인 未堂 선생의 러시아 유학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 놀라움과 함께 그간의 게으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곳의 꿈을 키워 菊香 그윽한 그의 인생을 음미하려하지 않는가! 내 이제 知天命의 삶에 들어서면서 소쩍새와 천둥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무서리의 초조함도 잊은채 요령있게 살아온 꿈없는 오늘이 얼마나 후회스러움의 날인지 모른다.

建築을 처음 시작할 당시, 시작부터 그 의미를 달리 하기를 몇번 이던가? 개념이라는 의미적 굴레에서 더욱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철학용어의 남발때문에 방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문화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진 건축의 소비성향은 역사의 유산보다는 유물적가치관의 인정만이 고맙게 여길뿐, 이제 20년으로 공인된 구조물의 정년 기한은 건축도 1회용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1회용의 만능은 삶의 모순과 환경의 부조리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규범마저 뒤흔들어 놓여 거기에 여기저기서 분명히 부르짖는自省의 움직임은 그래도 삶에 희망을 주고있다고 생각된다.

목적있는 삶의 여정에서 그 뜻하는 바 합리적이며 진취적일때 삶의 가치를 갖게하며 그러한 사회야말로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살아 볼만한 가치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상ियो 꿈인양 해바람에서 대부분의 생각들은 후회와 두려움속에 약속 아닌 方便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속에서 까맣게 잊어 버리고 새로운 삶의 추구속에 오늘도 허둥대고 있지 않은가.

고구려의 雄志속에 浩然之氣 넘치던 넓디넓은 만주벌의 氣像, 이제는 남의 땅, 눈치속의 관광이 땅각속에 자랑으로 변하여 이 땅을 바탕으로 끈질긴 삶을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터전 입에도 빼앗기고 나뉘어져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한 나라를 만들어 사는 세계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한 민족이 두개의 국기를 이룬 존경받지 못할 역사적 현실이 되었으나 兩頭一身의 相殘 속에서 一頭兩身の 相助의 變化를 기대하면서 빠르게 변하여 가는 요즈음의 정세는 그래도 정신없이 허둥대는 우리 삶의 의미를 운탁하게 한다.

또한 언어와 문자는 감성과 지성의 매체이며 같은 말과 글의 사용으로 예술적 감성과 이지적 사고의 개념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문화와 예술이 창조됨은 주지의 사실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 단절은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두개의 민족혼이 형성되며 골 깊은 분절의 사회가 이룩되며 가고있는 역사의 오류는 민족의 자긍심에 자아의 반성을 호소하여야 할 일이 아닐까하며 따라서 새롭게 진행되는 남북문제의 신기루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昨今 民主化의 非民主化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하게 하며 우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누구도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은 되살아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기 몫의 의무를 잊은 채 권리만을 기능질하며 자아상실속에서 허공을 헤매는 無明衆生이 사라져 자취를 감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뒤따를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다양한 사회에서 복잡성은 자칫 본래의 위치를 잃게 될 수도 있으나 프로세계에서의 독자성으로 분명한 자기 궤적이 연출됨은 우리 건축인의 자존심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散在되고 內在되어 있는 우리 분야의 많은 사안들이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유추, 지적되고 제안, 제기되어 해결의 모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나 쌓이고 쌓이는 답답함은 트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래도 속수무책의 기다림은 자조의 체념 속에서 내일의 변화를 기대함이 죽음의 방법을 기다리는 몰모트에 비하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한 민족의 갈라짐에 따른 설움과 피 땀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 역사의 피속에 숨겨진 분열의 유전자는 또다른 파벌의 형성과 골깊은 지역감정으로 이어져 만주벌의 웅지가 몰모트삶의 형태로 바뀐 조상의 어리석음과 남의 잘못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원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며 우리 건축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갈라짐의 징조에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개진의 다양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총회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간의 불화는 그야말로 요즈음 새롭게 보이는 "NIMBY 現象"의 증후군 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조상의 기개와 변영의 역사를 까맣게 잊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는 오늘의 우리를 왜소화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타지역의 도서등록시에 일어나는 극히 일부분의 배타적 현상은 건축계의 현실이 곤혹과 두려움의 연속임을 가히 짐작하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어렵게

하여 주위의 멸시와 자조로써 스스로의 묘혈을 파, 자멸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 되어 역경을 헤쳐나가는 조상의 슬기로운 지혜를 익히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방편의 맹랑함에서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태양의 햇살이 보배'라는 서양속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이선평 건축의 논리나 외적 조건의 불평은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건축문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은 우리를 더욱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환경보호파인가 파괴파인가 문화인가 비문화인가, 창작인가 모방인가, 희망적일까 절망적일까? 기준의 모호함과 가치의 혼돈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무력해지고 있다.

우리 모임의 약속으로 항상 제창되는 건축사 현장은 나무랄데 없는 信行이며 信念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윤리규약도 배제되며 우리 건축인의 참모습이 새겨져, 우리의 긍지를 갖게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이 구호이며 의식의 절차일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시중잡배의 의미마저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되고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존심과 긍지를 갖지 못할 때 설 자리 마저 잃게 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역사학자 Paul Kennedy는 "Give and Take의 정신"이 미국을 망친다고 하여 현실적 감각의 발달이 남다른 미국인을 평한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집앞에서 알짱대는 참새의 눈이 되지 말고 100리 밖을 내다 보는 창공의 독수리 눈이 되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이제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명제도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가능하는 가치기준을 상실할 때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며 올바른 自省과 끊임 없는 精進만이 내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인이 아니겠는가.

20여년전부터 晩學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老詩人의 삶의 자세에서 내일을 위한 삶의 투자에 게으름이 없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된다.